

우리 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View of Choice of Spouse and Marriage of Unmarried Women's College Students

김 영 옥
대전보건대학 가정관리과

Kim, Young Ock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Health Sciences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iew of the choice of spouse and marriage of unmarried women's college students.

Most respondents in this study think that the optimum age for marriage is 27 and prefer a seniority in age of 3-4 years who feels in love as the future husband. Also, they wish that the job of future husband be a technical expert.

Approximately 63% of respondents recognize the necessity of marriage but 38% of respondents do not show a positive opinion for marriage. They also expect the emotional stabilization or partnership from marriage. Majority of respondents show a negative response to the marriage as means to solve economic difficulties. However, only 25.9% of respondents strongly show the negative opinion.

In the acquaintance of the opposite sex in the purpose for marriage, most respondent are negative. However, they are positive in keeping virginal purity prior to marriage. Also,, it has revealed that respondents want a partnership through allotment in domestic duties including baby sitting rather than household management through patriarchal system. In household economy, they prefer sharing living expenses and having a job after marriage.

In choosing an ideal husband, although the academic background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ut the present occup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academic background. Also, one of the priority to choosing a spouse is influenced by each household circumstance and economic balance. About half of respondents want their parents-in-law to be alive, however, few respondents want to live together with parents-in-law.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정은 인간의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

운 활력소를 재충전해 줄 수 있는 안식처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장소로서 가정의 형성은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성되

게 된다. 결혼이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으로써 생물적 욕망의 충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2의 탄생으로서 현재까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가정이란 집단사회로 부터 떠나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소사회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지만(김영옥, 1983), 새로운 가정의 형성에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주위의 환경 등 제반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결혼은 본인 혼자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배우자의 존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배우자의 선택기준에는 두 가지 방향의 기준이 존재한다. 첫째는, 배우자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가정배경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직까지는 결혼 후의 소속이 법률적으로도 출생 본가에서 떠나 시가로 옮겨지므로 배우자의 여건은 결혼 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전통사회에서의 가정은 가부장적 사회이었으므로 결혼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여성 본인의 의사는 최소로 축소되어 부모가 결정해주는 것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고, 스스로의 감정의 표현이란 전혀 존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화에 있어서는 서구의 문화가 전래되면서 개인의 권리와 주장의 강조가 보수적이었던 전통사회에서 보다 현격하게 확대되고 나아가서 가정의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종래의 가부장적 가정에서의 부모의 주도적 주장도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상대 선택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의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의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상대방의 가문, 즉 상대방 집안의 사회적 배경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는데(김영옥, 1986) 비해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간의 개인적 배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결혼 후에 도출되어지는 문제점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남녀 이성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해 지고 교제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대방의 여러 면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다고도 하겠으나 오히려 단편적인 면에 집중하게 되기 쉽고 또 객관성을 잃어 상대의 단점이 덮어질 수 있는 이른바 편협성의 관계로 진전될 우려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당사자간의 객관성이 무시되거나 또는 개인적 배경에만 비중이 많이 주어지는 결혼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과의 관계정립, 구조역학적인 면 등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이나 결혼관에 있어서 결혼을 향한 개인적, 심리적 욕구가 다양하고 또한 시대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성장해 온 가정의 인습 등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의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현재 미혼이면서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게 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배우자 선택관과 결혼관에 관해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고찰

결혼이란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유영주(1984)는 이를 제2의 탄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혼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최재석(1966)은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결정사항으로서 가문(clan)이나 족보(genealogy)가 앞섰고 더욱이 여성 당사자의 의사는 거의 배제되었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고 해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Westermarck (1981)는 특히 유교적 의식구조가 강하게 사회체제를 지배하였던 과거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권 사회에서는 부녀자의 사회적 지위가 무시되고 가부장의 예속으로 시가에 충복하고 절개를 지키는 것을 미덕화하여 여성은 어려서 부터 이러한 능력(personality)이 형성되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이는 효행이 기본인 인류의 관념에서 연유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결혼이란 어느 관점에서는 결합하는 당사자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위 환경요건은 단지 고려의 대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결혼이 비록 당사자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 하여도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라는 조직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상치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의식구조하에서도 결혼관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써 배우자의 선택방법이나 기준 또한 변화하게 된다. 우리 나라도 서구의 개방의식이 전래되면서 결혼관이나 배우자의 선택관도 변화하여 이효재(1983)는 당시의 우리 나라 여학생의 75%가 중매후 연애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로 전환되어가는 중간단계로 해석하고 있으나, 손승령(1979)이나 김영옥(1983)의 연구논문에서는 50%의 미혼여성이 연애혼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시 상대방의 선택조건으로 유영주(1984)는 첫째로, 배우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로 현실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본조건에 비추어 볼 때 가정배경, 외모, 건강, 공통의 관심도, 행동의 기준, 경제력 등의 동질적 요인 및 이질적 요인 등이 조건의 대상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
- 2)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결혼적령기
- 3) 조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
- 4) 조사대상자가 희망 배우자 선택방법과 이유
- 5) 조사대상자의 현재 이성교제여부 및 결혼

과의 연계

6)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선택조건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조사는 서울 소재 고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대전소재 대전보건전문대학,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천안 소재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4개 지역의 9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총 800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회수된 인원수는 734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1학년 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학생살에 어느 정도 적응기간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나) 조사도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조사연구는 문헌연구로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관에 대한 의식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별첨 1과 같은 설문조항을 작성한 후,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기의 연구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다) 조사기간 및 조사절차

설문조사 항목의 설정을 위한 문헌연구는 1996년 11월 부터 1997년 5월 까지 하여 별지의 설문을 작성하였고, 설문조사는 1997년 6월부터 1997년 10월 까지 하였으며 잔여기간 동안 분석처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결혼적령기 및 배우자의 선택방법

본 연구에서 734명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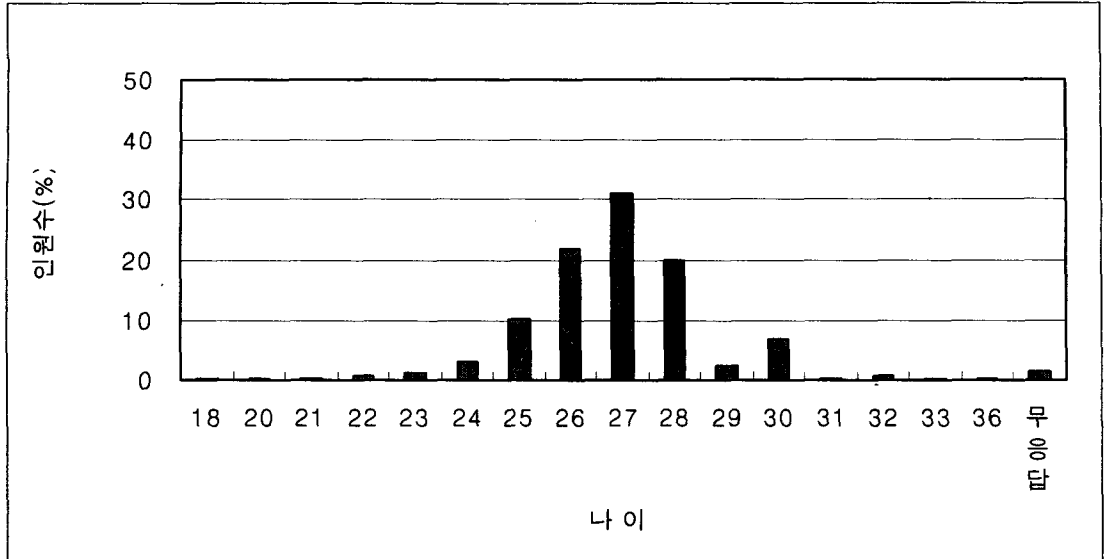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자별 희망하는 결혼적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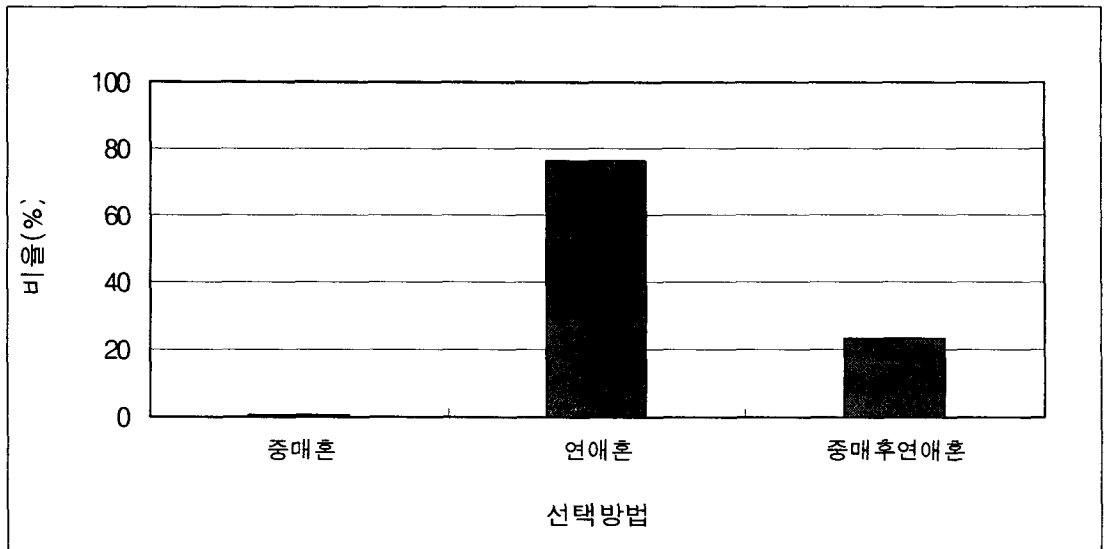


그림 2. 배우자의 선택방법

사항에 관한 도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연령 분포는 20세가 전체의 30% 이상을 점유하였고, 다음으로 19세와 21세가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20%을 다소 상회하여 19세부터 21세 까지의 분포가 약 80%를 차지하여 실제적으로 결혼에 관

해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의 이상을 정리하기에는 충분한 연령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의 종교에 대한 파악은 본 연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단순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종교를 갖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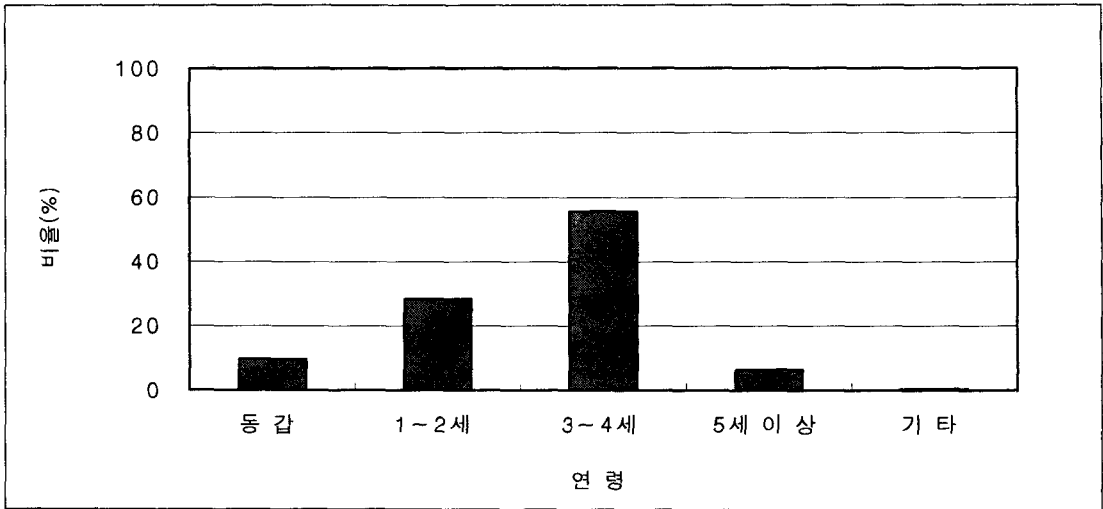


그림 3. 여대생들이 희망하는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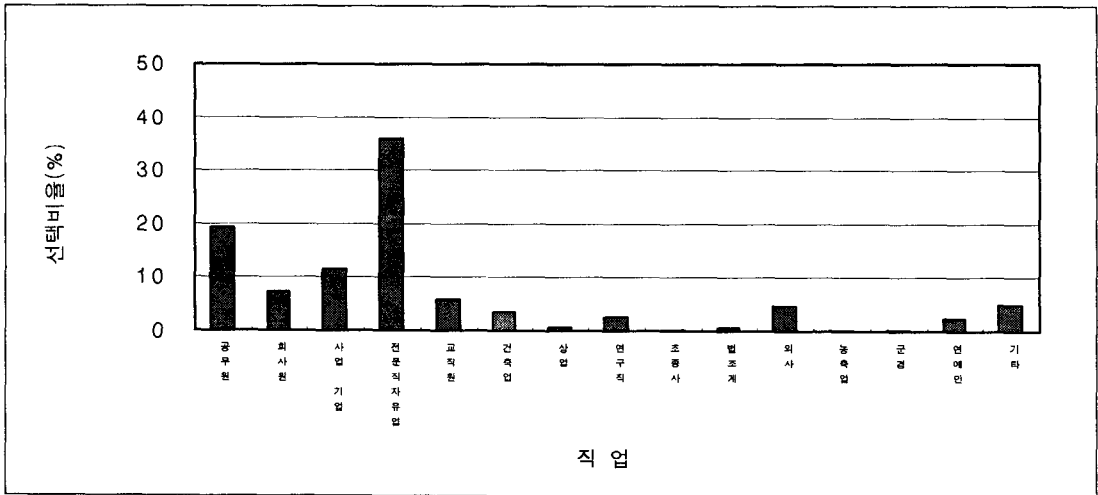


그림 4. 결혼시 희망하는 배우자의 직업

않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가 많았고, 불교, 천주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 응답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결혼의 적령기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30%의 학생들이 27세에 결혼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이 나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 분포를 나타냈으며, 전체의 약 75%가 26세에서 28세가 이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는 김영옥

(1986)의 연구보고에서 나타난 25세의 선호에 비교할 때 결혼의 적령기가 약 2년 정도 늦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방법은 연애혼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80%에 가까웠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배우자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약 20%의 응답자들도 중매혼을 한다 하여도 교제를 한 후에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단순히 중매에만 의존하는 방법은 거의 바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손승령(1979)의 조사보고나 김영옥(1983, 1986)이 조사한 조사결과에서 연애혼의 희망비율이 각각 51.3%와 53.5%이었던 결과와 비교할 때 여대생들이 장래 결혼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주관적인 입장을 보다 강하게 강조하려는 방향으로 의식구조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애혼이란 이른바 자유혼이라고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핵가족화하는 사회일수록 발달한 애정혼의 특징으로 가정적 배경보다는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의 선택방법에 있어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당사자 스스로의 결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결혼상대의 가정이나 사회적 배경이 배제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 조건은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제될 사항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자유혼의 사회가 중매혼의 사회보다 이혼율이 더욱 높다는 견해(유영주 등, 1996)도 있다.

2.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및 배우자의 직업

배우자와의 연령차이에 있어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55%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3-4세의 차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김영옥(1986)의 연구보고, 이효재(1983)의 연구보고에서 보여 준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시대별 조사에서도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이효재와 김주숙, 1976), 결혼의 형태가 자유혼인 연애혼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특히 여대생의 경우 배우자의 선택이 교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가능성은 더욱 높을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연령차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희망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약 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무원으로 약 20%, 사업이 약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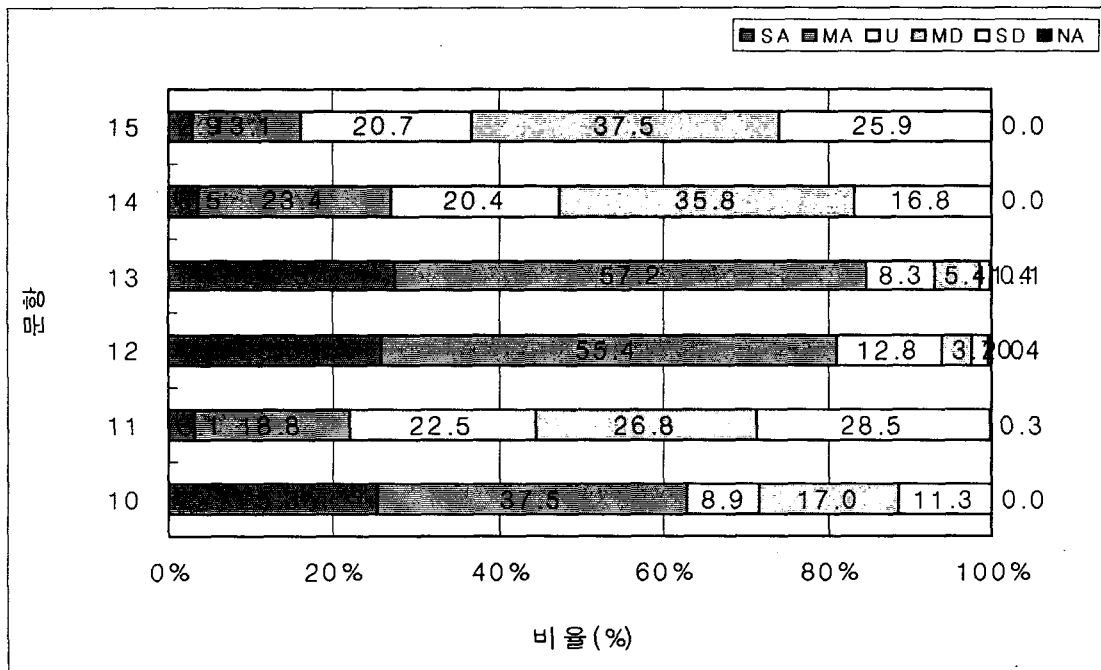


그림 5.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1996)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중에서 여성은 배우자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과반수가 안정된 전문직이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여대생들에게도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3. 여대생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결과와 분석

조사항목 중 10문항 부서의 항목에 대해서는 무응답자도 포함시켜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연관되는 문항들을 묶어서 집단으로 처리하였다.

SA : 매우 그렇다. MD : 다소 그렇지 않다.
 MA : 다소 그렇다.
 SD : 전혀 그렇지 않다. U : 모르겠다.
 NA : 무응답

A.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이란 두 사람의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기초적인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현재까지 소속되어 있던 집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결혼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그림 5의 10문항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62.8%의 여대생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응답자는 25.3%에 불과하고, 37.5%의 응답자는 미온적인 표현으로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도 2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 결혼을 개인의 성취감 때문에 하는가(11문항)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28.5%이고, 다소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응답자가 26.8%로 전체 응답자의 55.3%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매우 그렇다하고 적극적인 응답자는 3.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여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의 필요성이란 개인적 성취감의 달성보다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결혼은 동반자적인 감정의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12문항), 또는 정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13문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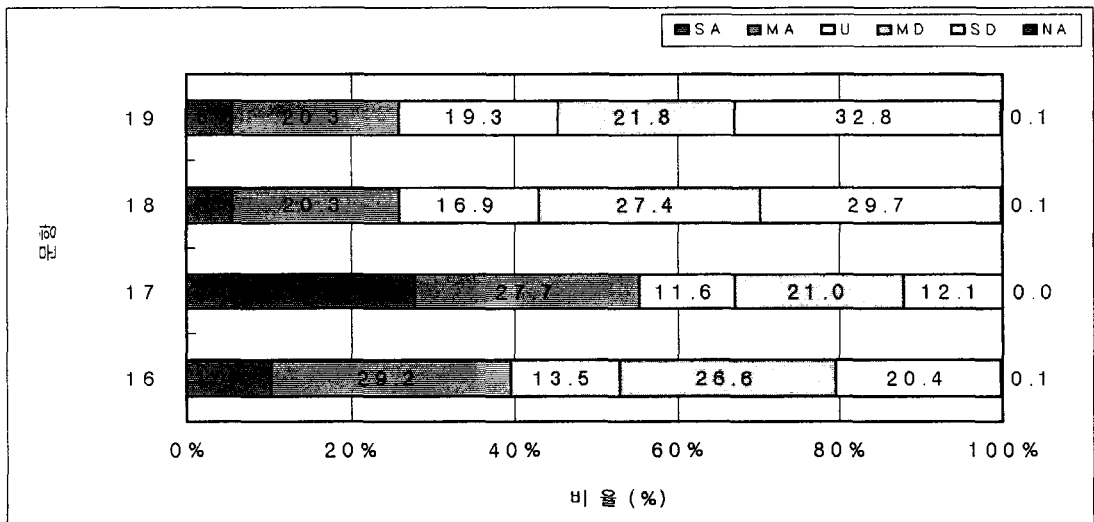


그림 6. 결혼과 이성교제의 연계 및 결혼전 순결에 대한 의견

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결혼은 자손을 이어가는 다시 말해서 종족번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14문항)으로 한다는 질문에는 다소 미온적이었으며, 특히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결혼이 경제적 의존이나 해결의 수단으로 필요한가(15문항)에 있어서도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인정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하였고, 강하게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수 25.9%를 포함해서 응답자의 63.4%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결혼을 경제적 해결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견해가 과반수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B. 결혼전의 이성교제와 순결

결혼전의 이성교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이성교제가 결혼과 연계되도록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16문항)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39.4%인데 비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47.0%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대생의 수가 오히려 더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보여준 응답자의 80%가 연

애혼을 선호하고 있는 것과 결부해서 해석할 때 여대생들의 이성교제는 비교적 가벼운 상태의 교제 또는 단순한 친구로서의 교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전 여성의 순결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문항(17문항)에 있어서는 55.4%가 순결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33%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또한 순결이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한 학생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인원은 절반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와 같이 결혼 전의 순결을 강조하는 기성세대의 의식구조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혼전의 순결문제가 제3자가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서의 답변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혼할 배우자의 경우에(18문항) 57.1%의 응답자가 상대방의 순결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의 순결에 있어서 만약 결혼할 상대가 혼전 성관계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19문항)에 있어서도 이를 강하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는 5.6%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며, 반대로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자는 32.8%이었으나 미온적인 부정이나 미온적인 긍정을 표현한 응답자,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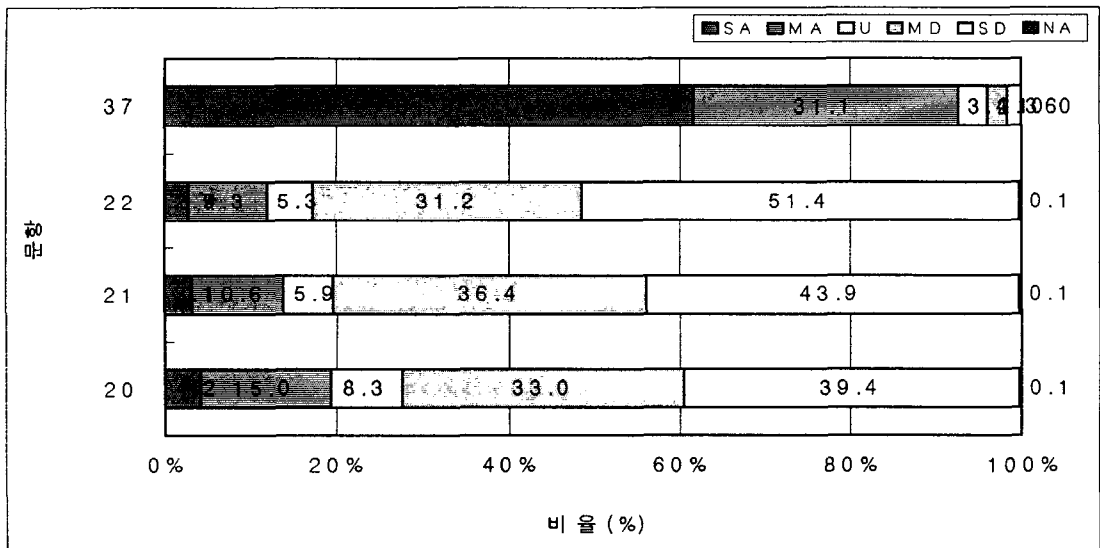


그림 7. 결혼 후 가정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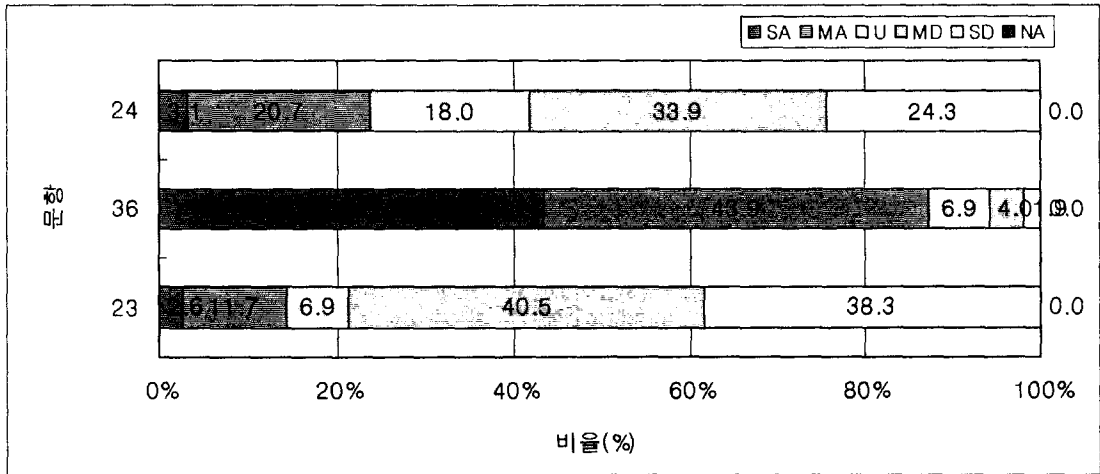


그림 8. 결혼 후 가정에서의 여성의 경제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약 20%를 점유하고 있어 아직도 상대가 결혼할 의사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여도 혼전의 순결은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고 인정된다.

C. 결혼 후 배우자와 가정에서의 역할구분

사회의 구조가 과거 전통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정이나 가족간의 형태 또는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7에서와 같이 본인이 결혼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남편의 위치가 가부장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20문항)에 있어서 역시 72.4%의 응답자가 부정적이었는데 반해 19.2%만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으며, 더욱이 남편의 위치가 가부장적이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응답자는 4.2%에 불과한 반면 39.4%의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문항(21문항)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 80%의 응답자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반대의사를 제시하였고 특히 43.9%의 응답자는 강한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자녀의 양육이 아내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문항(22문항)에 있어서나, 또는 결혼 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일의 분담(37문항)까지도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특히 가사일의 공동분담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율이 더욱 증가하여 응답자의 92.7%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D. 결혼 후의 경제관

결혼을 한 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관에 있어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남편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울 것인가(23문항)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8.8%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3%의 응답자만이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아울러 87.2%는 결혼 후 여성도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36문항)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여성도 가사일에만 전념하면서 남편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직장을 가지면서 자신의 경제적 독립 내지는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사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의 결정에 있어서는(24문항) 남편의 직장에 따르겠다는 응답자가 58.2%로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직장을 갖겠다는 의사는 경제적으로 완전독립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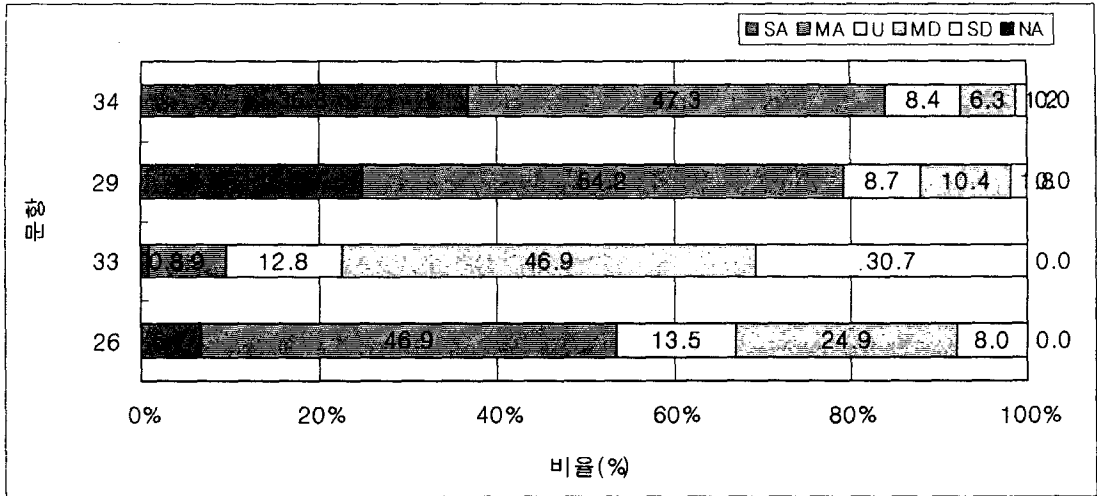


그림 9.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작용하는 배우자의 사회적 배경

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능력의 인정 또는 가정경제의 보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역시 가정에서의 생활의 경제적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E. 배우자의 사회적 여건

배우자의 선택에서 중요한 여건으로는 배우자의 사회적 여건, 개인적 여건 및 가정사항

이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된다. 이 중 배우자의 사회적 여건에 있어서의 견해는 그림 9에서 보여주듯이 53.6%의 응답자가 배우자의 학벌(26 문항)을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77.6%는 배우자의 현재의 직업을 학력보다 더 중요시 하고 있으며(33문항),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배우자의 현재의 직업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29문항)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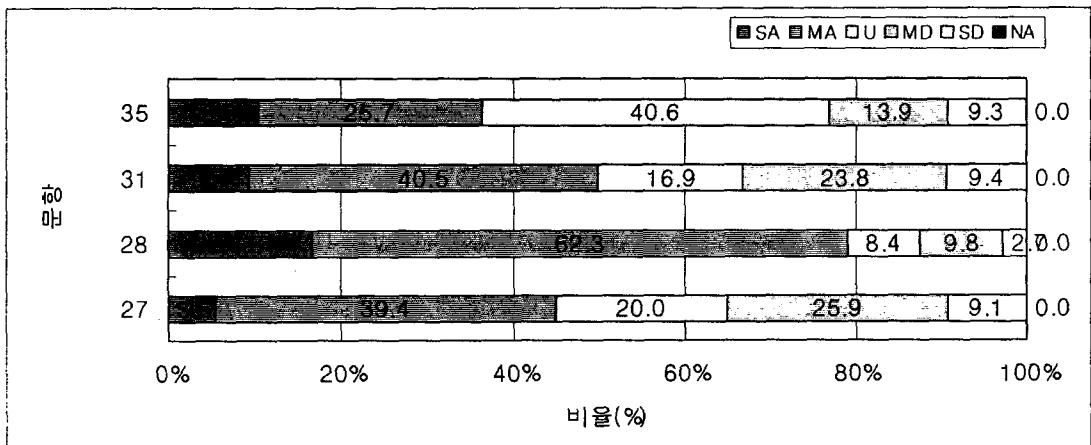


그림 10. 배우자선택시 배우자의 개인적 조건

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84.1%의 응답자가 배우자의 현재의 수입보다는 장래성(34문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혼 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이지만 배우자의 직업이 단순히 수입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성과 장래성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장 또는 직종인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사회적 인정이나 장래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벌도 제외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 배우자의 개인적 조건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개인적 조건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당사자의 외모 및 외형과 같은 신체적 여건, 학력, 출신가정, 출신지역, 종교 등 매우 다양하게 열거된다. 이 중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림 10에서 보여주듯이 외모보다는 학력이나 직업이 더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배우자의 외모가 학력이나 직업보다 더 중요하라는 질문(32문항)에서 응답자의 79.8%가 외모는 학력이나 직업보다 덜 중요하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다만 9.3%만이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출신지역이 매우 중요한 조건인가(30문항)에 관하여도

68.7%의 응답자가 문제시 삼지 않을 것으로 대답하였으나 17.3%의 응답자는 출신지역도 고려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다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25문항)에 있어서도 외모나 출신지역에서 보여 준 관용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응답자의 59.6%가 배우자의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문제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외모나 출신지역 보다 높은 25.4%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상대방의 학력이나 직업이 외모나 출신지역, 또는 종교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G. 배우자의 가정조건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상대방의 가정적 여건이 결혼의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하는가에 관하여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가정의 사회적 위치의 중요도에 있어(27문항) 45%의 응답자는 배우자의 선택시 상대방 집안의 사회적 위치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답변을 하였고, 35%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결혼할 상대의 집안여건이 결혼의 결정에 상당히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질문(28문항)에서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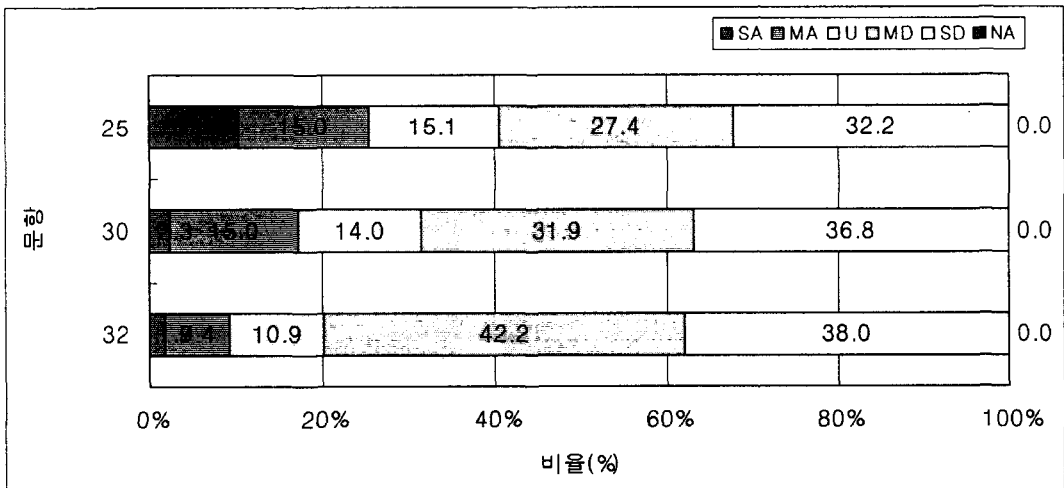


그림 11. 배우자 선택시 배우자의 가정환경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양가의 경제적 균형이 균등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응답자의 79.1%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12.5%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배우자의 선택이 단순히 두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가정조건도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부모에 관하여는 시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31문항)에서 49.9%의 응답자만이 생존을 바라고 있었으며, 33.2%는 바라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가(35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6.2%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은 의사를 표시하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23.2%로 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미혼이면서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게 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관과 결혼관에 관한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의 적령기는 27세로 나타났고, 또 결혼의 방법에 있어서는 중매혼보다는 연애혼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결혼의 상대는 3-4년의 연령차이가 있는 전문직에 종사할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조사의 대상이 아직 대학생이라는 젊은 층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응답자의 수는 의외로 저조한 편이었다. 또한 결혼의 필요성이 종래의 개념에서의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적 성취감의 달성보다는 오히려 동반자적인 감정의 기대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따라서 자손의 번식개념으로도 생각

할 수 있는 의무에 가까운 부모의 역할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한다는 의사에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결혼에 대한 개념이나 목적에 대한 사고가 많은 변화를 보여감에 따라 결혼과 이성교제를 연결시키지 않고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높아짐으로써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선택도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또 결혼전의 이성교제가 반드시 결혼과 연계되어야 하는 가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결혼전의 이성교제가 매우 자유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여도 순결에 있어서는 많은 여대생이 결혼전 여성의 순결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혼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남편의 위치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경향으로 보이는 가부장적이어서 하는가에는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구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이나 구분을 두지 않고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나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일까지도 대등하게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여대생들은 가정에서의 위치가 남편과의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위치에 서기를 원하므로 대부분의 여대생은 결혼 후 여성도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물론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인정받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배우자의 선택에서 학벌을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고는 있으나 배우자의 현재의 직업을 오히려 학력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또한 배우자의 현재의 수입보다는 직업의 장래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경제적 현실성이나 안정성을 중요한 여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할 상대의 집안여건에서도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에 민감하면서도 배우자와 자신의 경제적 균형과 같은 면에 있어서도 결혼의 결정사항에

상당히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산업사회속에서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알려지고 있듯이 여대생들의 의식구조에 있어서도 시부모와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응답자의 절반이 시부모가 생존하여 있기를 바라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옥(1983). 우리 나라 젊은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대전보건전문대학논문집, 5, 393-412.
- _____(1986). 우리 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관에 대한 조사연구. 대전보건 전문대학논문집, 8, 391-403.
- 손승령(1979). 미혼여성의 결혼에 관련된 예기적 사회화 연구. 연세사회학, 3, 77-98.
-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_____(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효재(1983). 한국 인구번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이화, 15-16합병호, 43.
- 이효재, 김주숙(1976). 한국여성지위. 서울: 이대출판부.
- 최재석(196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민중서관.
- Westermarck, E. A., 최달곤, 정동호 역(1981). 인류혼인사. 서울: 박영사.

< 별첨 >

학업에 열중하시는 여대생 여러분!

본인은 현재 대전보건전문대학 가정관리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영옥 교수입니다.
 금번 이와 같은 설문조사로 학생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급변하고 혼탁한 현대에서 여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여성의 교육에 임해야만 하는가에 어깨가 매우 무겁고 아울러 책임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특히 여성에게는 일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선택 여부가 결국 자신의 진로의 결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여성교육을 담당한 이상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젊은 미혼여성의 의식구조를 되도록 이면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7. 10.

대전보건전문대학
교수 김 영 옥

1. 귀하의 금년 연령은(만으로)? ①②③④⑤⑥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① 18세 이하(), ② 19세(), ③ 20세(), ④ 21세(), ⑤ 22세(), ⑥ 23세 이상()
2. 현재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
3. 귀하의 형제관계는? (여자자매 명, 남자형제 명 중 번째)
4. 귀하의 보호자의 직업은? ()
5. 귀하가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6. 귀하는 결혼하면 자녀는 몇 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남 녀)
7. 결혼시 배우자의 선택방법은 어느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매혼(), 연애혼(), 중매후 연애혼()
8.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는?
 동갑(), 1-2세(), 3-4세(), 5세 이상()
9. 가장 희망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

다음 항목부터는 각 문장을 관심 깊게 읽으신 후 당신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낸 번호에 O표를 하십시오

- | | | |
|-------------------|-------------------|-------------|
| 1. 매우 그렇다 : S | 2. 다소 그렇다 : MA | 3. 모르겠다 : U |
| 4. 다소 그렇지 않다 : MD | 5. 전혀 그렇지 않다 : SD | |

	SA	MA	U	MD	SD
10.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	2	3	4	5
11. 결혼은 개인의 성취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결혼은 동반자적인 감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1	2	3	4	5
13. 결혼은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1	2	3	4	5
14. 결혼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	1	2	3	4	5
15. 결혼은 경제적으로 절약되거나 이롭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6. 결혼전 이성교제는 결혼과는 연계되어야 한다.	1	2	3	4	5
17. 여성은 결혼전 순결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	1	2	3	4	5
18. 결혼할 상대라면 배우자의 순결은 무시할 수 있다.	1	2	3	4	5
19. 결혼할 상대가 원한다면 성관계를 가질수도 있다.	1	2	3	4	5
20. 남편의 가정에서의 위치는 가부장적이어야 한다.	1	2	3	4	5
21.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1	2	3	4	5
22. 자녀의 양육은 아내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	1	2	3	4	5
23. 가정의 경제는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소관이다.	1	2	3	4	5
24. 거주지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2	3	4	5
25. 당신의 배우자 선택시 종교가 다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배우자의 선택에서 학벌은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1	2	3	4	5
27. 배우자의 선택시 상대방 집안의 사회적 위치는 중요 시해야 한다.	1	2	3	4	5
28. 배우자의 선택시 양가의 경제적 균형이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29. 배우자의 직업은 결혼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1	2	3	4	5
30. 배우자의 출신지역이 어디인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1	2	3	4	5
31.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32. 배우자의 외모는 학력이나 직업보다 중요하다.	1	2	3	4	5
33. 배우자의 학력은 현재의 직업보다 중요시 된다.	1	2	3	4	5
34. 배우자를 결정함에 있어 현재의 수입보다 장래성에 더욱 중점을 둔다.	1	2	3	4	5
35.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다.	1	2	3	4	5
36. 결혼 후 여성도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37. 결혼 후 가사일도 부부가 분담해야 한다.	1	2	3	4	5

번거러운 가운데도 이처럼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가 우리 나라 청소년의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기대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보건전문대학 가정관리과 교수 김 영 옥